

인적 자원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- 개원의가 바라보는 임상디지털

나 기 원 / 예스미르치과

매일의 임상에 디지털을 접목시킨 소위 Digital dentistry는 더 이상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.

많은 선생님들이 디지털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, 그에 발 맞추어 많은 장비나 재료,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 진료의 효율성은 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, 장비들의 발전으로 진료의 질적인 면도 나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.

이제는 진료적인 부분을 넘어 디지털을 통한 병원 내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고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

디지털을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지 6년여가 된 현시점에 인적 자원 효율화를 돌아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한다고 말해야 하겠습니다.

분명히 이전에는 할 수 없었거나 하기 어려웠던 임상의 과정들이 디지털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의 시간이나 업무량은 줄일 수 있었지만, 이런 효율화가 필요 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.

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.

학력 및 경력

- *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- * 치과 보철과 전문의
- * 통합치의학 전문의
- * Medit KOL
- * Dentalbean speaker
- * 현, 예스미르치과의원 원장